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심장입니다!”



선교헌금 작정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자동이체(CMS)’나 ‘봉투’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정보,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도 반드시 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 및 해지는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이체 날짜는 매월 25일이다. 봉투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선교헌금작성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찬양 선교사(잠비아)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이라며 “늘 기도와 선교헌금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관련 기사4면>.

한편 2026 선교사 간증집 <눈물이 기쁨 되어>를 출간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19유닛의 간증이 담겨있다. 1월 11일(일) 예배 이후 성도들에게 배포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02-3215-361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월 10일과 11일 2차 ‘2026 선교헌금 작성’ 선교헌금작성서, QR코드, 온라인, 전화 참여

2차 ‘2026 선교헌금 작성’을 1월 10일(토)과 11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예배

에서 한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더보기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전화로 참여할 수 있다.

2026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17일까지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2026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가 ‘나를 따라’를 주제로 1월 17일(토)까지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2026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2주 차에는 1월 12일(월) 정재욱 목사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마 7:7~11), 13일(화) 신동식 목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 14일(수) 양재경 목사 ‘너희도 가려느냐?’(요 6:66~69), 15일(목) 노규석 목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20), 16일(금) 변대섭 목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

느냐?’(마 7:1~5), 17일(토) 이재훈 위임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토요일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예배를 드린다.

이정민 성도(서빙고온누리교회)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과 나 자신을 믿고 따랐던 것을 회개하며 작은예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책갈피형 성경 읽기 진도표도 제공한다. 책갈피형 성경 읽기 진도표는 1월 한 달 동안 온누리교회 안내데스크 및 헌금함에 비치한다.

둘째,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에 참석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선교관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셋째,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공지한다.

문의: 02-3215-3239

/ 박지혜 기자

‘공동체성경읽기’ 시작

유튜브 채널, 2부 새벽기도회, 공동체성경읽기 모임

‘공동체성경읽기’가 시작됐다. 공동체성경 읽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째, 매일 자정 유튜브 ‘365 성경읽기’ 채널(www.youtube.com/@every365bible)에 업로드되는 ‘절기별 영상’(하루 15~17분 분량)을 시청하면 된다. 2월부터는 온누리교회 공

동체성경읽기 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는 공동체별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공동체 총무나 순장, 정해진 사역자가 매일 자정에 업로드되는 영상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성경 읽기 진도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하단(교인지원센터→자료실)

차세대 패션집회 ‘Unshakable’

1차 1월 30일~2월 1일,
2차 2월 1~3일

2026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패션(PASSION, 이하 패션집회)이 막 오른다. 1차 1월 30일(금)부터 2월 1일(일), 2차 2월 1일(일)부터 3일(화)까지 배재대학교(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에서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을 주제로 열린다.

2026 패션집회에서는 개회예배, 저녁 집회, 파워페스티벌, 주제 강의, 폐회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차세대들은 부서별로 제공된 참가 신청 링크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선재 목사(차세대본부장)는 “패션집회 ‘Unshakable’에 참가하는 모든 청소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주신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매우 간단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목적이 ‘가서 제자 삼는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명령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되게 하신 것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계획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제자를 부르신 까닭은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는 사역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야하는 두 가지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제자들은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고 당황하며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8:10).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승천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역입니다. 제자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름을 받았던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첫 순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 갈릴리가 가진 선교적 의미 때문입니다. 갈릴리를 표현할 때 언제나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함께 썼습니다. 그만큼 변두리였고, 이방의 침략도 많았고,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한 유대 민족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선교적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만 머물며 그들만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으로 퍼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장소를 통해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고 경배 드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에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만 진정한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러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공동체에서 진정한 선교가 일어납니다. 예배공동체와 선교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선교공동체가 됩니다. 예배와 선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 명령을 받고도,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7절). 우리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에 ‘나는 이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한 명 중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고, 불안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18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마태복음〉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19-20절).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 동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것만 동사이고, 나머지는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문법적으로 동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왜 세례를 줍니까? 제자 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새 생명의 체험이 세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교사가 학생을, 부모가 자녀를 세심하게 가르쳐주듯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에도 가는 것이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놀라워해야 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명령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열한 명은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이들이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둘째, 그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셋째, 이 명령을 받은 제자의 숫자가 열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소수의 열한 명에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과연 열한 명의 제자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하셔야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열한 명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 그 열한 명을 통해 예수 믿고 제자 된 이들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문제는 이 명령을 얼마나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가 다툼과 분열로 열목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동이 없고, 기도의 역사가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로 귀결됩니다. 이 명령을 ‘선택’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한 명으로 시작된 명령의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영혼들을 총체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배고픈 자들의 빵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고, 법적인 노예로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20절b).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이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종교적 신념은 공적 영역에서 침묵해야 할까?

대화 중 누군가 “종교인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당신과 당신의 신 사이에만 두세요”라는 말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교회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만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아니면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갈 권리까지 보호하는 것일까?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다르며, 우리나라에는 이 둘 모두가 있다. 예배의 자유는 ‘무엇을 믿을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인 종교의 자유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사람을 예배의 자유에만 묶어 두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자유는 정부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혹은 집과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믿는지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만을 보장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믿을 자유는 가지지만,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살아내고 나누는 자유는 가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예배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없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유만으로는 신앙인에게 거의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나라를 세운 이들은 헌법에서 예배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둘째,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며, 우리 모두에게 속한다. 대체로 누군가가 “종교인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가 염두에 두는 것은 최근 수십 년간 정치화된 도덕적 이슈들이다. 음란물, 낙태, LGBT 관련 사안 등이 그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법이나 규칙을 만들거나, 심지어 주장조차 할 권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종교의 자유를 다른 권리들보다 열등한, 이른바 2등급 권리로 취급하는 셈이다. 즉, 정부가 만들어낸 권리(낙태권, 동성 결혼권 등) 보다 덜 중요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정부가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다. 많은 철학자가 말해온 것처럼, 이는 자연권, 즉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서 정부가 무엇을 말하던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

셋째, 종교의 자유는 공적 영역에 속한다. 공적 영역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은 서로 다른 사상이 경쟁하고, 그중 가장 좋은 생각이 선택되는 곳이다.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일부 사상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믿음에 접할 기회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가장 잘 질서 있게 만드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로운 사회는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그

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상이 자유롭게 발현되기를 바라야 한다. 그래야만 가장 인간이 변영하고, 각 개인의 존엄을 가장 잘 존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영원에 대한 갈망에 응답하는 가장 좋은 신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으며, 종교의 자유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불편한 감정은 그 한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종교인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다르며,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 다 존재한다.”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서 우리 모두에게 속한다.”

“종교의 자유는 공적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공적 영역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정치

그리스도인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소고



장우진 장로
(강촌공동체)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 가장 현저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 하나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와 양극화에 따른 진영 간의 대립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 정치, 문화, 세대 면으로 사람들의 견해와 주장의 틈새가 커지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해소될 수 없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정치에 관한 이슈는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를 가져왔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도 한순간에 갈라놓을 수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도 정치 문제가 개입되어 관계가 깨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도 정치 진영 갈등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보수를 지지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성애, 교육,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보수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를 원한다. 반대로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서 난민, 차별, 인권 등에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한다.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현상은 대한민국의 대형 복음주의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 차이가 단순한 견해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나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치적

적인 견해 차이로 갈라서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된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성도가 정치 문제는 예민한 이슈이므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다루지 않고 피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정치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피해 나갈 수 없는 핵심적 삶의 영역임을 분명히 한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 국가 시스템을 세웠고, 왕정 도입 문제는 사사시대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였다. 예수님도 로마제국의 식민정치에 관한 견해 표명을 강요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살던 시대에 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성경 여러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종교개혁의 선구자 칼뱅은 그의 사역지 제네바에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근대 정치 시스템의 모형을 만들었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세운 정치공동체가 오늘날 미국의 기초가 되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정치는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기독교인은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영영주권처럼, 우리가 처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정치 진영의 주장의 내용과 진실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진영의 기본 흐름과 주장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아

니면 배치되는지 관심을 갖고, 수고하며 시간을 써서 알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목회자들은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의 주요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지에 관해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치 쟁점의 관계에 대해 성도들 사이의 대화도 지혜롭게 할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의 건전한 정치관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과 연계시켜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정치 만능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양극화의 파고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 가치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교회는 이념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의 일차적인 정체성은 보수나 진보가 아닌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을 멸절시켜야 할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지체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존중해야 할 귀중한 지체임을 깨닫고, 나의 일방적인 정치적 견해와 주장이 상대방에게 무례한 일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게 될 것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정교분리는 국가와 교회의 영역을 혼동하지 않는 ‘기능적 구별’을 유지하면서도, 불의와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 파괴 요소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선지자적 사명’을 병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정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사랑 그리고 정직이 사회에 실현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각 성도는 정당 활동, 집회 참여 등

의 정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성경적 가치가 정치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이 교회 내에서 편 가르기가 되거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건전한 정치적 토론이 가능하고, 세속사회에서의 정치 토론과 달리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 집중하기보다 성경의 핵심 가치와 각 진영이 주장하는 정책 위주의 토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중요한 정치 현황과 이슈에 관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쪽만이 옳다는 태도를 넘어 상대방과 제삼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은 정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한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적 리더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없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정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복음적 초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이 제시하는 이분법적 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성도는 현실 정치에 여러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하고,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낼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서 모든 사회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선교의 최전선에서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안수현, 이찬양 · 이정선 선교사, 김윤정 자매의 고백

“동역.”

아프리카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붉은 흙먼지 속에서, 전쟁의 상흔이 남은 유럽의 거리에서 멈추지 않고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말라위 안수현 선교사, 잠비아 이찬양 · 이정선 선교사 부부, 선교사 파송을 준비 중인 김윤정 자매가 그 주인공이다. 선교의 최전선에서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계속 뛰게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하나였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헌금’과 ‘기도’라는 이름의 동역 때문입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왼쪽부터 말라위 안수현 선교사, 잠비아 이찬양 선교사, 선교사 파송 준비 중인 김윤정 자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목이 타들어 갈 때 시원한 물 한 잔 건네주는 손길, 풀려버린 신발 끈을 대신 묶어주는 사람,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끝까지 응원을 보내는 이들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선교는 ‘선교사’라는 달리기 선수의 용기와 의지만으로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경주다.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고립된 트랙 위에서 선교사들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힘은 성도들의 세심한 관심,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이다.

선교헌금, 변화와 기적을 만드는 힘

아프리카 말라위 블랜타이어의 어느 시골 마을.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하다. 교과서에서나 봤던 한국전쟁 직후의 가난이 이곳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다. 1년에 한 번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수확하기 전까지 이어지는 ‘춘궁기’에는 굶는 게 일상이다. 초등학교에는 책걸상이 없어서 아이들이 바닥에서 공부하고, 가방이 없어서 검정 비닐봉지에 책을 담는다. 가난은 아이들의 꿈조차 가로막는다. 100명이 입학해도 졸업하는 아이는 겨우 10명 남짓이다.

안수현 선교사는 이곳에서 ‘Bright Future ECD센터’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졸업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마을 학교에 시험지를 안전하게 보관할 창고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피약별 아래서 왕복 4시간을 걸어서 다른 마을 학교로 가야 했다. 배고픔과 더위에 지쳐서 시험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안수현 선교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아이들의 발을 짓무르게 하고, 꿈을 포기하게 했던 그 절망적인 행군을 멈추게 한 것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헌금’이었다. 성도들의 헌금은 이 석열 선교사(말라위)가 진행하던 ‘시험지 보

관창고’ 건축 사역의 열매로 맺어졌다. 이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아이들의 진급과 졸업을 보장하는 ‘희망의 창고’가 되었다.

변화는 교실 밖에서도 일어났다. Bright Future ECD센터에서는 말라위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깨고자 ‘아버지 참여 수업’을 열고 있다. 말라위 시골 지역에는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유독 많고, 아빠가 자기 자식을 예뻐하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었다. 안수현 선교사는 이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서 보호자가 남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한 수업을 기획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삼촌, 형까지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세상에서 가장 뻔뻔했던 남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땀을 흘리며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은 말라위 아이들의 고단한 발걸음을 멈추게 한 쉼터이자, 굳게 닫혔던 아버지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더운 날 4시간을 견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아이들의 환호성과 난생처음 자녀와 눈을 맞추며 웃던 아버지들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기적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선교헌금, 하나님 약속의 증표

아프리카 잠비아에는 70개가 넘는 부족과 언어가 공존한다. 이찬양·이정선 선교사는 가난과 미신이 뒤섞인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은 ‘육체의 가시’였다. 아들의 자폐 진단과 이찬양 선교사의 혈액암 투병이라는 거친 파도를 지나야 했다. 그때는 정말 선교지가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극심한 통증과 절망 속에서 이 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헌금이었다.

이찬양·이정선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는 라마나트 학교의 한 학기 학비가 한화로 약 6천 원(100코차)이다. 이 적은 금액조차 내지 못하

는 아이들이 전교생의 절반을 넘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헌금이 아이들의 부족한 학비를 채웠다. 교사들의 월급도, 아이들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배불리 먹는 소중한 식재료도 선교헌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선교헌금으로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헌금으로 공부하던 아이들이 의젓한 전도사와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시작한 전교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영적 마라톤’은 잠비아 땅에 말씀의 불을 지폈다. 이찬양 선교사는 한국의 동역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으로 지난 성탄절에 모든 성도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며 2029년까지 완독하는 4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글을 모르는 어머니들은 아기를 등에 업고, 성경책을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있다. 그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선교사가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선교헌금과 기도가 그 약속의 증표가 되어서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학비 6천 원이 없어서 꿈을 접어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영적 리더가 되어서 제 곁을 지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한 권의 성경책은 잠비아 성도들이 4년의 영적 마라톤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경주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선교헌금, 가장 거룩한 결단

유럽은 더 이상 복음의 발원지가 아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외로운 땅이 되어가고 있다. 유럽에서 나고 자란 김윤정 자매에게 고향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다시 찾은 유럽은 복음이 사라진 황폐한 영적 전쟁터와 같았다. 그 실망감에 유럽 선교는 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중에 “가고 싶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가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

시며 김윤정 자매를 다시 부르셨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김윤정 자매는 폴란드의 난민 긴급구조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온누리교회 단기선교 훈련인 FA와 TP 선교사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선교사 훈련 과정은 오직 후원자들의 헌금으로만 생활하는 ‘믿음의 훈련’이었다. 특히 전쟁 여파로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난민수련회를 준비하는 중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했다. 한인마트에서 사기에는 비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걱정하며 회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이미 한인마트에서 쌀을 구입해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었다. 한국에서 온 아웃리치팀도 난민수련회를 도왔고, 수련회에 필요한 모든 식사와 사역비도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깊이 경험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금도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헌금 덕분에 전쟁으로 가난해진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겼다. 난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교회’다. 그곳에 난민의 신분을 넘어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초기 사역부터 함께해 온 세 아이의 어머니와 난민보호소의 청소년들은 지난 여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

김윤정 자매는 현재 신학교 입학에 앞두고 있다. 유럽 땅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다시 유럽으로 나갈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헌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는 가장 거룩한 결단입니다. 난민들이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선교적 열매의 현장에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이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의 선교헌금과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대학청년부 풍성한 겨울사역

리더십 콘퍼런스, 연합 콘퍼런스, 겨울 아웃리치



사진은 지난해 겨울 진행된 SNS청년부 몽골 아웃리치.

대학청년부 겨울사역이 풍성하다. 1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와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가 열린다. 1월 20일(화)부터 2월 26일(목)까지는 겨울 아웃리치를 떠난다.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는 1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영산수련원(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391번길 42)에서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진행된다. 청년부 리더십 9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제강의, 집회 등을 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

종길 목사, 최성민 목사, 존 스톤스 트리트 목사 등이 강의한다.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는 1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길 122-83)에서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이어진다. 대학부 청년 700여 명이 참석한다. 집회, 공동체 프로그램, 주제강의 등을 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강부호 목사, 최성민 목사, 김승수 목사, 이인용 장로 등이 강의한다.

대학청년부 겨울 아웃리치는 SNS청년부 태국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하늘대학부 태국 방콕과 넝부아 아웃리치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노방전도, 부흥집회, 어린이 및 노인 보호 시설 공연, 현지 청년 집회, K-문화 사역 등을 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과 함께 일-일 통독

기독 OTT ‘풍당’, 유튜브, CGN TV

올해도 ‘CGN과 함께 일-일 통독’(이하 일-일 통독)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매일 자정 기독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 성경 읽기 영상이 업로드 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8시, 일요일 오전 6시 30분 CGN TV 채널에서도 방영한다.

‘일-일 통독’은 1년 동안 성경을 일독 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평균 15분이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 성경책은 개역개정

과 우리말성경을 사용한다.

성경 통독 12개월 시청 인증 이벤트도 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기독 OTT ‘풍당’에서 ‘일-일 통독’을 시청하고, 성경 읽기 표 진도 체크를 모두 완료한 성도가 대상이다. 이벤트 응모는 1월 15일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 3세대(1명), 휴대용 독서대(364명)를 선물로 준다.

문의: 02-792-0691



/ 홍하영 기자



온누리올타리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자립준비청년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온누리올타리 ‘자립준비청년 멘토’ 모집

사회선교본부 소속 온누리올타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멘토를 모집한다. 온누리올타리는 보육 시설을 떠나 사회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립하도록 기도하며 동행하는 사역이다.

온누리올타리 자립준비청년 멘토로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동체 순예배 참석,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 QT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다. 타 교회 성도는 소속 교회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공동체 소그룹에 참석하고, QT 등 말씀 묵상 생활을 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온누리올타리 정기모임 2회 이상 참석, 멘토 오리엔테이션 수료, 온누리올타리 리더십과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로 선발되면 매월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하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월 1회 이상 일대일 대면 멘토링을 한다. 매월 중보기도 모임과 멘토 모임에도 참석해야 한다.

오창화 팀장(온누리올타리)은 “많은 성도가 외로움과 씨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문의: 010-6479-0885

(이수정 총무)

/ 홍하영 기자



선교 현장 변화, 학문으로 증명!

NGO 더멋진세상·한동대학교 ‘임팩트 리서치’

NGO 더멋진세상과 한동대학교가 손잡고 선교 현장의 장기적인 변화를 측정하고, 미래 선교 모델을 모색하는 현장 연구에 돌입했다.

마인호 교수의 지도로 한동대학교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GRP)에 참여한 학생 4명이 지난 1월 5일(월) 스리랑카로 출국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현장 연구는 NGO 더멋진세상과 한동대학교가 맺은 MOU의 결실로, NGO의 현장 전문성과 대학 연구 역량을 결합해 선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한동대학교 연구팀은 온누리교회에 입양해 지속해서 섬긴 스리랑카 베다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임팩트 리서치’를 수행한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이어 온 보건, 식수, 교육, 농업, 환경 등 ‘더멋진마을’ 사역이 지역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총체적 선교 관점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 전개될 새로운 ‘더멋진마을’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서빙고 권사성가대원 모집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

서빙고 권사성가대원을 모집한다. 70세 이하 온누리교회 권사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성가대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성

가대실에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권사는 1월 31일(토)까지 전화(총무: 010-2070-7622, 팀장: 010-4616-1491)로 접수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80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8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장소 추후 공지). 참가신청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

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는 1주 차 ‘아버지의 영향력’, 2주 차 ‘아버지의 남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 박지혜 기자

*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신문(1월 4일자) 6면에 보도한 ‘2025 사르밈 프로젝트 성경책 후원 권수가 ‘13,097’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안나중보기도팀 ‘기도제목’ 모집

안나중보기도팀에서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기다리고 있다. 안나중보기도팀은 성도들이 제출한 기도제목을 품고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사역팀이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질병의 치유나 자녀 문제, 가정의 회복, 사업의 어려움 등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어떤 기도제목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기도제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중보기도요청은 각 캠퍼스에 비치된 ‘중보기도 카드 수거함’에 기도제목을 적어 넣으면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의 경우 본관 2층과 3층 계단 벽면, 선교관 1층 엘리베이터 옆, 모세방 앞 벽면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최은 작가 초대전 ‘THE MIRROR’

온누리아트비전에서 회원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최은 작가 초대전 ‘THE MIRROR’가 2월 8일(일)까지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 1관과 2관에서 열린다. 이번 초대전 ‘THE MIRROR’에서는 ‘거울’이라는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삶을 비추고 성찰하며,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를 이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10-3128-2332

/ 박지혜 기자

1월 화요성령집회 ‘FOLLOW ME’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월 화요성령집회가 ‘FOLLOW ME’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3일 서진 목사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가라’(왕상 19:9-18), 20일 최성민 목사 ‘완고함을 꺾고, 돌이키라’(행 9:1-19), 27일 최대홍 목사 ‘계산을 멈추고, 본받으라’(요 13:1-15)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선교학교 3기 수료 간증



/ 손춘옥 성도(부천한사랑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명자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말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원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같은 시련이 찾아왔다. 북한 곳곳에서 무더기 죽음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때 나는 부모님을 병환으로 모두 여의고 고아 신세가 되어 언니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너무 힘겨운 생활에 지친 나머지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곳에도 참된 자유는 없었다. 중국에서의 삶도 생지옥 같았다.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두 차례 복송을 당했다. 첫 번째 복송 때 동료를 통해 처음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 그날 이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살려달라는 말뿐인 서툰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미숙한 기도마저 들어주셨다. 두 번째 복송은 내 인생의 끝과 같았다. 간경화로 온몸이 망가지고 복수가 차올라 배가 부풀어 오르며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이 이어졌다. 밤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곁을 스칠 때마다 “하나님,

제 딸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살려 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며 울부짖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어둠의 골짜기로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한국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한국 땅에 파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처음 교회에 나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았다. 특히 ‘통일선교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이 땅으로 파송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다가오는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우리는 도망쳐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명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아픔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 아픔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7기 수료 간증



/ 이소영 성도(서현교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은 하지만 친하지는 않은 사이. 이것이 내가 정의한 우리 부부의 모습이었다. 신혼 초, 갈등 상황이 시작되면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나는 애기 좀 하자며 무력으로 잡아끌기도 했는데, 전쟁 같은 시간으로 종종 이어졌었다.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삶이 바빠지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도 하고, 포기도 하며 격렬한 전투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들로 상처받고, 다투는 일상을 살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을 알게 하시고 초대하셨다. 1, 2주 차 강의장에서는 손도 잡고 다니고, 하가훈의 따뜻한 분위기에 가까워진 듯하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3주 차에 놀라운 경험을 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서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3주 차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주일 밤 함께 누워 내 마음을 나눴다.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물 흐르듯 소소한 이야기거리들이 줄지어 나왔다.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바라봐주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좋았다. 연애 시절, 신혼 때도 받아보

지 못한 시선이었다. 연애의 알콩달콩함과 신혼의 달콤함이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하고 감격했다. 그날 배운 것을 바로 실습할 기회가 주어진 게 정말 감사했다. 우리 부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느껴져 더욱 감격했었다. 감동의 밤이 지나고 월요일에 남편이 출장을 떠났다. 꿈같은 기억은 아련해진다. ‘깨닫고 다짐했던 마음이 되돌아가지 않을까?’, ‘지난날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진 않을까?’ 작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다 보게 된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하노라”(빌 1:6).

말씀이 능력이고, 위로이자 소망이다.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리라. 우리의 연약함과 다시 돌아가려는 죄성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제야 함께 첫발을 내디뎠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빼각거릴지 모른다. 기쁨의 첫 열매가 비바람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닌 지나는 과정임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교토 전도트립’ 참가 간증



/ 신호식 집사(경기A공동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가족에게 일본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의 기억이 깃든 땅이다. 첫째 딸이 두 돌 지났을 무렵, 직장생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도피처처럼 찾은 곳이 일본 후쿠오카의 한 대학원이었다. 그곳에서 학업과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유학생들을 모아 기도모임을 했는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테니 모이지 말라”는 당시 섬기던 한인교회 재일동포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잠시 낙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소중한 둘째 딸을 선물로 보내 주셨고, ‘후쿠오카 하베스트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도 만나게 하셨다. 경배와 찬양, 소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공동체에서 힘겨운 유학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공동체 전도사역자로 섬기던 중에 ‘시가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집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특히 시가현 오츠시는 대학 시절 처음 방문했던 해외라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처음 전도본부 모임에 참여했을 때 기대와 달리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밀려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 사용하셔서 우리 부부를 전도 현장 한가운데 세워주셨다.

숙련된 전도사역자들과 함께 교토에서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과거에 받았던 전도폭발훈련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며 일본어로 복음을 전했다. “준비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最高の幸)) 마지막 장은 직접 복음을 전하며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 덕분에 오츠역 앞에서 만난 두 청년과 교토 주택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본의 귀한 영혼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해와 달이 일본 땅 위에 그대로 멈춰 있게 하소서.”

노방전도를 나서는 날 아침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묵상하며 드린 기도와 선포처럼, 일본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호민 성도(OCC공동체)

순종과 깨달음

온누리교회 1호 장로였던 아버지 김영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앙의 기본이 ‘순종’임을 배웠다. 지난해 초부터 우리 부부는 OCC공동체 공전사(공동체 전도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공전사 사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시작했다. 아내 이정민 집사가 공전사 단체대화방에서 전도학교 참여를 제안했고, 이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록했다.

전도학교의 첫 강의에서 전도문 암기, 엄격한 출석 기준, 〈날마다 전도 111〉독서와 독후감, 관계전도, 노방전도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순종’이라는 신앙의 기본을 따라 아내와 성실하게 임하기로 결단했다.

5분 기본 전도문을 암기하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크게 감동을 했다. 무엇보다 전도학교 훈련 기간 9주 훈련생들과 조장님, 두 부조장님의 격려와 동행을 통해 모든 만남

이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가운데 있음을 체험할 수 있었다.

파고다공원에서 첫 노방전도가 전도학교의 하이라이트였다. 두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도했다. 한 어르신과 대화하는데 과거 친할아버지를 전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반복되는 거절과 냉담한 반응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두 분이냐 영접기도를 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달았다. 예수님이 받으신 멸시와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다.

서울역 전도에서는 영접기도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눠 드렸다. 그중에서 몇 분과 대화하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전도를 신앙생활의 선택 사항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말씀과 찬양, 기도와 교제에 더해 전도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전도학교는 내 신앙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배움을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교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빙교 용인시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살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8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남양주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임정준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앨버틴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마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3 Higasinsaisaih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나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H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utocho 1-4(1F&2F), uku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illegible]

광고	
Point5 찬양팀 세션 모집 모집: 일렉 2명, 베이스, 드럼, 건반 각 1명 시간: 주일 11:3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하용조기념홀 문의: 장성엽 전도사(010-2531-7610)	
영어 놀이 프로그램 'Dream Seed' 교사 모집 모집: 소그룹, 반주 일시: 3월~4월 매주 토요일(10:30~12:10) 장소: 도곡교육관 1층 꿈터 문의: 박정옥 코치(010-4394-9309) *교사 모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은누리복지재단 후원회좌
 하나는행/573-910015-15105/(복)은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형 팀장(02-3215-3413)

은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이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원지은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원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연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1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정신신자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여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사용하세요. 헌금안내 심일주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83-2897(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통상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가족 상담실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 1/2(금) 광명 이재우 집사 부친상, 김화순 권사 시부상
고 이종득
- 1/2(금) 서대문 임경화 집사 부친상 고 임무치
- 1/3(토) 가정사역 정재훈 성도 부친상, 홍은정 성도 시부상
고 정윤우
- 1/3(토) 분당B 신재은 성도 부친상 고 신현경
- 1/5(월) 강남E 이진영 성도 부친상 고 아두배
- 1/5(월) 도곡 백기현 권사 부친상, 김문갑 장로 빙부상
고 백낙주
- 1/5(월) 분당A 김현수 선교사 빙부상 고 홍종엽
- 1/5(월) 서빙고 남병호 집사 모친상, 임희재 집사 시모상
고 정재선
- 1/6(화) 신원산 장금동 집사 빙모상 고 서방자
- 1/6(화) 서초B 임진옥 성도 모친상 고 이필선
- 1/7(수) 양재A 이윤정 성도 시모상 고 송석금
- 1/8(목) 강남B 최정은 성도 모친상 고 김기분
- 1/8(목) 강남C 박현숙 권사 모친상, 배윤수 집사 빙모상
고 이순옥
- 1/8(목) 송파B 나점두 집사 모친상, 이현숙 권사 시모상
고 서점순
- 1/8(목) 성동광진 지연주 권사 모친상, 임용빈 성도 빙모상
고 변치연
- 1/8(목) 동작 광정애 집사 모친상, 독고영 집사 빙모상
고 신진범

온누리 새해는 선교와 함께

2026년 1월 3-4일, 10-11일 선교헌금 작성

| 선교헌금 작성 방법 |

1. 현장 작성(2026년 1월 3~4일, 10~11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성서 작성
 2. 온라인 작성(상시 작성 가능) : 선교헌금작성 QR코드
 3. 전화 작성(상시 작성 가능) : 02)3215-3616
-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작성



2025 선교 보고

☎ 02)3215-3616 선교헌금 문의

| 선교헌금 작성서 작성 방법 |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CMS)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신규 작성란> 작성
- ③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변경 작성란>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현금봉투 방식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